



# “다양한 연령층에 사랑받고파”

비투비, 정규 앨범 ‘브라더 액트.’ 발매

“저희가 파격적인 걸 추구하는 팀은 아니에요. 고의로 이슈를 만든 적도 없고요. 좀 더 다양한 연령층과 사람들에게 이용되는 H&M이나 유니클로 같은 팀이 되겠습니다.” (정일훈)

7인조 보이그룹 비투비(BTOB)가 16일 2년 만의 정규 앨범인 ‘브라더 액트.’ (Brother Act.)를 내놨다.

비투비는 이날 서울 강남구 임페리얼 팰리스 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데뷔 6년 차를 맞은 소회를 이렇게 말했다.

13곡이 담긴 ‘브라더 액트.’는 한 편의 음악영화처럼 구성됐다. 비투비의 평소 유쾌하던 모습은 잠시 내려놓고 성숙한 이미지를 부각했다. 타이틀곡 ‘그리워하다’는 멤버 임현식(25)이 작곡한 곡으로 헤어진 연인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잔잔하게 풀어냈다.

치열한 가을 컴백 대전, 세계적인 아이돌이 된 방탄소년단과 ‘괴물 신인’ 워너원 등과의 경쟁이 부담스럽지는 않았을까.

이민혁(27)은 “워너원이나 방탄소년

단처럼 매년 세상을 놀라게 하는 친구들을 보며 저희도 놀란다”며 “저희도 예전에 보여드리지 못한 모습을 새롭게 보여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해까지 큐브엔터테인먼트에서 한술밥을 먹었던 그룹 하이라이트와 같은 날 컴백하는 것에 대해 “연속생 때부터 존경하던 선배들이어서 영광이다. 다양한 가수들이 다양한 음악을 보여드릴 수 있다는 건 즐거운 일”이라고 답답하게 말했다.

완전체 활동에 대한 기대감도 드러냈다. 이들의 7인조 컴백은 7개월 만이다. 지난 3월 10번째 미니앨범 ‘필름’ (Feel ‘eM)의 타이틀곡 ‘무비’ (MOVIE)로 활동한 이들은 4월 이창섭을 시작으로 9월 서은광까지 멤버별 솔로곡을 발표하는 싱글 프로젝트 ‘피스 오브 비투비’ (Piece of BTOB)를 진행했다.

정일훈(23)은 “개인 활동도 흥미롭지만 7명이 함께일 때 에너지를 얻는다”고 강조했다. 이창섭(26)은 “멤버들이 정말

노력해서 만든 앨범이니 기대하셔도 좋다”고 덧붙였다.

이번 앨범의 성적을 어느 정도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이민혁은 “4년간 무명 생활을 한 만큼 솔직히 순위에 연연하지 않는다”며 “저희 음악을 보여드릴 기회를 부여받은 것 자체에 감사하는 마음뿐”이라고 말했다.

육성재 역시 “기자간담회를 할 때마다 매니저 형들에게 ‘기자분들 몇 분이나 오셨어요?’라고 걱정하며 물어본 게 잊그제 같다”며 “앞으로도 바르고 오래 가는 건진지 같은 비투비가 될 것”이라며 고개를 숙였다.

멤버들은 갓 데뷔한 아이돌 그룹처럼 거침없이 ‘1위가 목표’라고 외치진 않았지만, 팀 자체에 대한 애정은 누구보다 커 보였다.

리더 서은광(27)은 “비투비는 오래오래 다 같이 음악을 할 것”이라고 말했고, 육성재도 “저희는 끝을 상상하지 않고 있다. 은광이 형의 건강이 닿는 데까지 계속 노래할 것”이라고 거듭었다. /연합뉴스



## ‘범죄도시’ 8일째 부동의 1위

‘희생부활자’ ‘블레이드 러너’ 등 신작 등장에도 굳건

마동석·윤계상 주연의 액션영화 ‘범죄도시’가 신작들의 공세에도 1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

16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범죄도시’는 지난 주말 이틀간(14~15일) 총 1,127개 스크린에서 75만6,630만 관객을 모으며 흥행 순위 1위를 지켰다. 누적 관객 수는 367만2,523명으로 같은 날 개봉했던 경쟁작 ‘남한산성’ (361만7,519명)을 넘어섰다.

이 영화는 지난 3일 개봉 당시 흥행

순위 3위였지만, 입소문에 힘입어 사흘 만인 6일 2위로 올라섰고, 8일에는 ‘남한산성’을 제치고 1위로 올라선 이후 8일째 정상을 지키고 있다. 주말 이틀간 매출액 점유율은 51.4%에 달한다.

‘남한산성’은 같은 기간 총 667개 스크린에서 15만7,666명을 더하며 2위를 차지했다.

지난 12일 간판을 내건 신작들은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을 내고 있다.

개봉일 2위로 출발했던 김해숙·김래원 주연의 스릴러 ‘희생부활자’는

주말 이틀간 총 676개 스크린에서 13만5,701명을 모아 3위를 차지했고, 라이언 고글링·해리스 포트 주연의 SF물 ‘블레이드 러너 2049’는 총 616개 스크린에서 12만1,209명을 모아 4위에 랭크됐다.

이어 ‘킹스맨: 골든 서클’, ‘아이 캔 스피크’, ‘넛잡2’ 등이 차례로 5~7위를 차지했고, 12일 개봉한 일본 영화 ‘나는 내일, 어제의 너와 만난다’가 4만7,876명을 모아 8위에 올랐다.



## ‘은막의 여왕’ 원로배우 김보애 별세

지난해 12월 뇌종양 진단 투병

원로배우 김보애씨가 지난 14일 오후 11시에 별세했다. 향년 80세.

유족에 따르면 고인은 지난해 12월에 뇌종양 진단받은 뒤 투병해왔다.

서라벌예술대학 연극학과를 졸업한 고인은 1956년 영화 ‘육단춘’으로 데뷔해 ‘고려장’ (1963), ‘부부전쟁’ (1964), ‘종자돈’ (1967), ‘외출’ (1983) 등에 여러 영화에서 주연으로 활약했다. 1984년 영화 ‘수령에서 건진 내 딸’에서는 딸 고 김진아와 함께 모녀로 출연했다.

서구적인 외모로 한국 최초 화장품 모델로 발탁됐고, ‘한국의 메릴린 먼로’라고 불리기도 했다.

고인은 활발한 저서 활동도 펼쳤다. ‘슬프지 않은 학이 되어’, ‘잃어버린 요일’ ‘귀뚜라미 산조’ 등 4권의 시집을 출간했다.

고인은 2000년에는 영화기획사 NS21을 설립, 남북영화 교류를 추진했고, 2003년에는 월간 ‘민족21’의 회장 겸 공동발행인을 맡는 등 문화예술 분야 남북 교류 사업에도 앞장서왔다.

1959년 배우 김진규와 결혼해 1남 3녀를 뒀다. 차녀 고 김진아와 막내아들 김진근씨는 배우로 활동해왔다.

빈소는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3호이며 발인은 18일 오전 9시다. 장지는 신세계곡원묘원.

※이 프로그램은 방송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TV

	KBS1	KBS2	MBC	KBC-SBS	EBS
6	00 KBS 뉴스광장	15 걸어서 세계 속으로	00 휴먼 다큐 사람이 좋다 스페셜	00 모닝 와이드	00 한국기행(재) 20 세계테마기행(재)
7	50 인간극장	05 생방송 아침이 좋다	20 MBC 뉴스투데이 50 훈장 오순남	30 KBC 모닝 730	00 강철소방대 파이어로보 45 출동! 슈퍼헝스
8	25 아침마당	00 다큐멘터리 3일 스페셜	30 생방송 오늘 아침	25 닥터 365 30 달콤한 원수	00 당동맹 유치원 30 플라워링 하트 45 방귀대장 뽕뽕이
9	30 KBS 뉴스	00 꽃피어라 달순아 40 여유만만	30 김경식의 영화 대 영화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 아침	00 몬카트 15 소피 루비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0 1 대 100(재)	50 20세기 소년소녀	10 SBS 뉴스 40 KBC 생활뉴스	30 한국기행(재) 50 최고의 요리비결
11	00 명품역사관 정 50 한식	50 마녀의 법정(재)	00 TV속의 TV	00 꾸러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20 세계테마기행(재)
12	00 KBS 뉴스12 30 영상앨범 산(재)			00 SBS 12뉴스 55 톡톡 보험설계	00 EBS 정오 뉴스 10 미스터리 휴먼 다큐(재)
1	00 뮤직토크쇼 가요1번지 50 한국인의 밥상(재)	00 로마의 지하세계	20 헬로키즈 55 수빈 스토리 2	55 닥터 365	40 성년 불고기(재)
2	40 월요기획(재)	00 생활의 발견(재) 50 자동공부책상 위키 2	15 텔레몬스터(재) 40 별별머느리(재)	00 뉴스브리핑	30 마루의 어드벤처
3	30 행복한 지도(재)	20 TV 유치원 50 여유만만(재)	45 하하랜드 스페셜	00 중흥 S-클래스 고교동문 골프대회	00 우주탐험가 젯 15 꼬마기사 마이크 45 부릉! 부릉! 브루미즈
4	00 4시 뉴스집중				15 두다다쿵 55 명탐정 피트 2(재)
5	00 KBS 뉴스 5 30 팔도밥상 스페셜(재) 40 남도지오그래피	00 영상앨범 산(재) 30 제보자들(재)	00 MBC 이브닝 뉴스 40 20세기 소년소녀(재)	00 SBS 오뉴스 45 KBC 저녁뉴스	10 당동맹 유치원(재) 30 강철소방대 파이어로보 45 호기심나라 오키도
6	00 6시 내고향 55 한식(재)	30 2TV 생생정보	10 살맛나는 세상	00 맨 인 블랙박스(재) 20 KBO리그 플레이오프 1차전	00 톡!톡! 보니 하니 25 플라워링 하트 45 우리 몸 X파일
7	00 KBS 뉴스 7 35 세만금 표류기	50 내 남자의 비밀	15 돌아온 복단지 55 MBC 뉴스데스크	00 몬카트 30 EBS 뉴스 55 극한 직업(재)	40 다큐 오늘 50 세계테마기행
8	25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30 글로벌24 55 1 대 100	35 김경식의 영화 대 영화 55 별별머느리	50 SBS 8 뉴스	30 한국기행 50 EBS 다큐프라임
9	00 KBS 뉴스 9 40 살아있는 지구2(재)	00 마녀의 법정	00 20세기 소년소녀	20 사랑의 온도	45 아빠 찾아 삼만리
10	30 KBS 뉴스라인				
11	00 세상을 걷다 55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	10 철부지 브로망스- 용따름	10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30 불타는 청춘	35 메디컬 다큐 7요일
12		35 세상의 모든 다큐(재)	40 허끝으로 만나는 중국 스페셜	50 나이트 라인	25 세상의 모든 범죄 30 한국영화특선 (건축학개론)(재)

오늘의 운세		10월 17일(8월 28일)	
 子	48년생 명성을 천하에 떨치겠다. 60년생 냉정하고 과감한 선택이 필요하다. 72년생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 84년생 순풍에 돛을 단 듯하다.	 午	42년생 명분보다 실리를 중시하라. 54년생 대부분 모란 돌이 정 맞는다. 66년생 가는 곳마다 행운이 따른다. 78년생 내일을 위해 오늘을 희생하지 말라.
 丑	49년생 눈 뜨고 도둑맞는다. 61년생 원칙만 지킨다면 큰 문제는 없겠다. 73년생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만 보인다. 85년생 마음만 바쁘고 되는 일이 없다.	 未	43년생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 서방이 번다. 55년생 노력한 보람이 있다. 67년생 뿌린 만큼 거두기 마련이다. 79년생 새로운 일거리가 생긴다.
 寅	50년생 노력하면 된다. 62년생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법이 아니다. 74년생 처음부터 큰 것을 바라지 말라. 86년생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申	44년생 마음을 굳게 쓰면 복을 받는다. 56년생 자신감이 넘치고 힘이 솟는다. 68년생 위험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80년생 자신을 소중하게 여겨라.
 卯	51년생 경사가 겹치는 좋은 날이다. 63년생 인정받고 좋은 자리로 옮길 운세이다. 75년생 고생 끝에 낙이 온다. 87년생 결국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다.	 酉	45년생 하루가 시원하게 땀 뚫린다. 57년생 급할수록 돌아가라. 69년생 행복은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 81년생 사랑과 친절은 이자가 붙어 돌아온다.
 辰	52년생 선심을 쓰고도 욕을 먹는다. 64년생 눈치 없는 자를 멀리하라. 76년생 돌이킬 수 없는 일에 미련을 두지 말라. 88년생 건강을 과신하지 말라.	 戌	46년생 위험한 유혹이 있겠다. 58년생 감당 못할 일은 시작을 말라. 70년생 현상유지만 하면 성공이다. 82년생 공든 탑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巳	41년생 장고 끝에 악수 둔다. 53년생 사랑하는 사람을 실망시키지 말라. 65년생 노력은 성공의 어머니이다. 77년생 자신의 주장을 펼치고 뜻을 이룬다.	 亥	47년생 되는 일이 없는 날이다. 59년생 확신이 없다면 멈춰야 한다. 71년생 인정에 끌려 대의를 망치지 말라. 83년생 미래를 위한 투자가 필요하다.